

**안전·안심
민생 구청장**



**1 진짜 일꾼
진교훈**

| | | | |
|-----|-----------------|----|---------------------|
| 배포일 | 2023. 10. 7.(토) | 담당 | 김연주 (010-2027-7211) |
|-----|-----------------|----|---------------------|

진교훈 마곡나루역 두 번째 집중유세 “강서의 자존심과 민주당의 자존심을 지키겠다” 홍익표 원내대표 등 지도부 “투표하는 시민이 승리한다”

‘안전·안심·민생구청장’ 진교훈 더불어민주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7일 오후 2시 마곡나루역에서 두 번째 집중유세를 갖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일꾼을 강서구청장으로 뽑아달라”며 “강서의 자존심, 민주당의 자존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진 후보는 “강서구민들을 만나볼 때마다 어떤 구청장 후보를 원하시는지 묻는다”라며 “일 잘하고 신뢰할 수 있는 후보를 원한다면 진교훈이다. 저는 기획, 예산, 성과관리, 조직업무, 다양한 행정 업무를 경험해 본 일 잘하고 청렴하고 깨끗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진 후보는 “지난 20여 년 동안 강서구는 바로 뒤의 마곡나루 역과 서울식물원 등의 상전벽해가 이루어졌다. 강서구의 발전을 일으키고 주도했던 세력은 바로 우리 민주당이다”고 밝히며 마곡지구 개발, 고도제한 완화 등 강서구의 현안 사안들을 강서구민과 함께 이끌어 온 것은 민주당이었음을 강조했다. 또한, “어떤 후보는 강서 16년의 역사를 부정하고 강서구민과 강서구청 공무원들의 헌신을 깡그리 무시한다”며 김태우 후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마지막으로 진 후보는 “강서 역사를 아는 사람, 낮은 자세로 여러분을 섬기는 사람,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진짜 일꾼을 강서구청장으로 뽑아달라”며 전

폭적인 지지를 호소했다.

“투표하는 시민이 승리합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집은 다른 데 있고 강서에 월세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 지역에서 19년 동안 살아온 사람에게 진정성이 있지 않겠냐”라고 물으며 “그저 손님처럼 강서구도 잘 모르면서 대통령이 하라니까 여당이 시켜서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김태우 후보를 겨냥했다. 또한,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구청장 선거가 아니라 1년 5개월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 확실한 심판”이라며 “대통령의 국정기조를 바꾸는 첫 번째가 진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무릎을 꿇리자”

정청래 최고위원은 “강서구청장으로 진교훈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민주당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일”이라며, “진교훈이 강서구청장이 된다는 것은 무도한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이 이곳 강서에서 무릎을 꿇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 되고 그동안 고생도 많았고 힘들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우리가 승리할 것이다”라며,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우리 강서구에 터를 잡고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나”라고 진 후보를 추켜세웠다.

이날 유세에는 홍익표 원내대표, 정청래·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이해식 조직사무부총장, 한병도 전략기획위원장, 김영주 국회부의장, 고용진·설훈·양경숙·유동수·임오경·임종성·장철민·진선미·한준호 의원, 후원회장 노현송 전 강서구청장, 상임공동선대위원장 김영호 서울시당위원장, 한정애·진성준·강선우 의원이 참석했다. /끝.

※ 사진 별첨



